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 지켜낸 안의·손홍록 기린다

정읍시, 선양 모임 창립…웹툰 제작·장학사업·조형물 설치 등 추진
1592년 전주사고→내장산→익산→아산 등 사재 털어 옮겨가며 지켜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선비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 선생을 기리기 위한 모임이 창립했다.

정읍시는 '문화재 지킴이의 날'인 지난 22일 서울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안의·손홍록 선생 선양 모임' 창립식을 했다.

안의·손홍록 선생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6월 22일(음력) 마을 사람 20여명과 함께 전주사고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을 정읍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겼고, 이후 더 깊은 산속인 은적암, 비래암 등으로 옮겨가며 1년여간 지키면서 매일의 상황을 '임계기사(壬癸記事·전북도 유형문화재)'로 남겼다.

당시 충주사고, 상주사고, 춘추관이 소실됐고 전주사고 만이 남아 실록이 언제 불에 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실록이 익산과 아산, 인천을 거쳐 강화부까지 옮겨질 때도 사재를 털어 동행하면서 실록을 지켜 냈다.

이런 의미를 높이 평가해 문화재청은 2018년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과 어진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긴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창립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모임의 고문을 맡은 박영일 전 쌍용양회 대표, 안의 문중 대표 안성협씨, 손홍록 문중 대표 손상호씨,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참석했다.

선양회는 앞으로 조선왕조실록 이안(移安·영정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심) 과정 웹툰 제작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선비들의 고향인 옹동과 칠보 소재 학교 장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영일 고문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간직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켜 낸 분들을 조명하고 노고를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정읍시는 최근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로 가는 탐방로 내 여섯 곳에 손홍록·안의 선생 일행이 어진과 실록을 이안하는 행렬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선양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 22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모임의 고문을 맡은 박영일 전 쌍용양회 대표, 안의 문중 대표 안성협씨, 손홍록 문중 대표 손상호씨,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의·손홍록 선생 선양 모임' 창립식이 열렸다. 〈정읍시 제공〉

'호국보훈의 달' 고창 보훈가족에 감사 마음 전달

한마당 행사 8개 단체 400명 참석
故 이요재 하사 가족에 훈장 전수

고창군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제1회 고창군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 행사'를 가졌다.

지난 23일 고창읍 태흥뷔페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고창군지회를 비롯한 보훈관련 8개 단체 400여명의 보훈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회장 성홍제)에서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와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후원했다.

고창군은 지난 6·25전쟁 당시 훈장수여가 결정됐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고(故) 이요재 하사의 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 외에도 모범 보훈가족 9명에게 감사의 표창패 수여와 15명의 6·25참전 용사들에게 위대한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을 전달했다.

지난 23일 고창읍 태흥뷔페웨딩홀에서 열린 '제1회 고창군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 행사'에서 심덕섭(왼쪽 두 번째) 고창군수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하여 보훈을 더 따뜻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세계자연유산 고창 갯벌 보존과 활용

등재 2주년 기념 포럼…중앙부처·지자체 역할 등 논의

고창 갯벌의 가치를 조명하는 2023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포럼이 최근 고창상하농원에서 열렸다.

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 지지네이쳐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은 갯벌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 각계의 역할과 사명을 숙의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조도순 국립생태원장, 전승수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관련 지자체, 고창군어촌계, 고창군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종길 한국생태관광협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우경식 전 강원대 교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지질공원, 그리고 한국의 갯벌' ▲박진순 한국해양대 교수가 '갯벌의 기초생산과 기후변화' ▲성하철 전남대 교수가 '고창갯벌과 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우 교수는 세계자연유산의 의미를 비롯해 고창의 지질공원이 가지는 가치를 설명하고 자연보전을 기반으로 하는 갯벌의 도약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생물에 대해 소개한 데 이어 "해양생태계가 만들어내는 블루카본은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및 저장 효율이 높다"면서 갯벌이 만들어내는 블루카본이 미래 환경을 지켜낼 중요자산이라고 언급했다.

고창갯벌의 특징과 조류 조사결과를 발표한 성 교수는 실제 조류 분표도와 섭식행동, 먹이원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주선희 한국생태관광협회 상임부회장 ▲문경오 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 ▲조류학회 강희영 박사 ▲명호 생태지평 연구소장 ▲최수경 금강생태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빈집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

전문가 검토·서명 대신 건축주·철거업체가 처리 가능

남원시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주민편익과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를 추진한다.

현재 빈집을 비롯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물관리 법에 따라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건축사 등에게 서명·날인을 받는 소용비용이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들이 적지 않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신정훈 국회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은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을 해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없이 해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 발의하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이에 남원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의 경우에 한해 전문가의 검토 및 서명·날인된 건축물 해체계획서 대신 건축주 또는 철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건축물 해체계획서로 건축물 해체 신고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빈집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는 윤활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조택수 정읍사문화제위 이사장, 성균관 부관장에

조택수〈사진〉 사단법인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이사장이 성균관 부관장에 선임됐다.

조 부관장은 최근 서울 성균관 대성전에서 고유식을 통해 정식으로 부관장을 임명 받았다. 고유식은 입학, 졸업, 건물 준공 등 학교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선현들에게 알리는 성균관 전통의식이다.

조 부관장은 공직을 퇴임 하고 고향에 돌아온 후 태인향교 전교와 전라북도 향교제단 전교협의회 회장, 정읍 충렬사 보존회장을 맡으며 유교문화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백제가요 정읍사문화제 발전에 기여하고, 정읍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을 역임하며 향토사 연구에 힘써왔다. 또 정읍사 논총 발간과 유물, 도자기 작품 기증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인성교육과 정읍 향토문화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